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월간 내일

“
우리는 모두
필수노동자입니다
”

12
Vol. 547

행복 일터

Intro

일상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히어로입니다

희망 일터

잡월드 체험기

숙련기술로 활짝 여는 ‘기술적 미래’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우리가 꿈꾸던 커리어우먼,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신가요?

Contents

2020년의 마지막 달!
올해도 역시 눈 깜짝할 사이 일 년이 지나가버렸네요.
저 늘봄 과장은 연말이 되니 연초에 세운
목표들이 떠오르면서 아쉬운 일과 감사한 분들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는 한분 한분의
얼굴이 스치면서 그 분들 덕분에 오늘도 무탈히
출근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방금 이 책을 펼친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47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2020. 12
vol.547

행복 일터

Intro 04
일상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히어로입니다

Topic 08
빅데이터 키워드로 돌아보는
코로나19와 2020년

People 12
우리는 모두 필수노동자입니다

System 16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고용노동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Plus 20
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19 특별 지원정책이 있잖아요

Post 24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정과 일터
함께 만들어 갑니다!

희망 일터

인생 2막 28
마크라메에 빠진 엔지니어,
공예인으로 거듭나다
– 이장순 마크라메 공예지도사

명장의 시간 32
금속보다 단단한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사나이
– 동진금속 나상조 대표

더불어 세상 36
반려동물과 함께 달콤한 일상을 꿈꾸다!
– 반달컴퍼니

기술이 힘! 40
신중년 특화과정 덕분에
전기제어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설계카드 44
K-BEAUTY의 중심
전세계 미용 트렌드를 이끌어갑니다

잡월드 체험기 48
숙련기술로 활짝 여는 '기술적 미래'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정책이슈 52
택배기사 과로문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고용노동 뉴스 56

힐링 일터

미디어 속 노동읽기 62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꿈꾸던 커리어우먼,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한가요?

시사백과 66
판교 사투리로도 불리는 스타트업 용어를 아시나요?

직장탐구생활 68
직장인 모티켓(Mobile+Etiquette)
잘 좀 지킵시다!

고민타파 70
코로나19로 유난히 추운 겨울
제 고민 좀 들어봐 주실래요?

저녁이 있는 삶 74
정주행에 빠진 당신,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합니다!

직장인 건강상식 76
마스크로 생긴 트러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주말에 뭐 할래? 78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아쉬움을 달래줄 선물 같은 작품들

애독자 모의고사 82

With COVID-19

일상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히어로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걸까요. 모두가 마스크를 쓴 거리 풍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동안, 어느새 코로나19와 함께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연초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한 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쉬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두 손을 마주잡고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심정으로 지낸 2020년의 마지막 달, 여러분의 겨울은 안녕하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알던 일터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연 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화기애애한 점심시간과 대면 미팅도 줄어들었죠.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떠나거나 직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실업자, 사업주, 취업준비생, 특수고용 노동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별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도 대면 노동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했죠. 마스크를 벗고 환히 웃을 그 날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특별 지원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 참조 빅카인즈, 엠포스 데이터랩

빅데이터 키워드로 돌아보는 코로나19와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포털에 오르내린 검색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자년(庚子年)을 뜨겁게 달군 빅데이터 키워드를 모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적 재난 상황을 선언하다
팬데믹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이라는 뜻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일컫는데요. 14세기 발병해 중세 유럽 국가를 강타한 흑사병부터 2009년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질병들을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포되면서 세계고전문학 소설인 〈페스트〉 다시 읽기, 영화 〈감기〉, 〈컨테이젼〉 다시 보기 등 감염병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가 다시 소환되기도 했죠.

연관 키워드: 세계보건기구, 흑사병, 페스트

어떻게 쓰는 것이 맞나요?
마스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도 벌어졌었죠? 당시 마트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시적으로 발생했었는데요.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마스크 구입 5부제를 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구입하고 착용해야 할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연관 키워드: 덴탈 마스크, KF94, 마스크 착용법

안전한 집이 최고!
집콕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나고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집콕이라는 키워드의 사용 빈도가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각광받았죠. 운동도, 요리도, 취미활동도 집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찾아가는 원데이클래스 강좌 등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동시에 홈오피스, 홈짐 등의 인테리어를 위한 수요도 늘었다고 해요.

연관 키워드: 홈트, 홈캉스, 홈코노미, 사회적 거리두기

덜 연결되기 위한 노력들
언택트 경제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은 다양한 언택트 경제활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출퇴근하던 직장 생활은 유연근무제로 바뀌었고, 의식주의 상당 부분을 택배나 배달로 해결하곤 했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박 캠핑을 하고, 영화관을 찾기보다 넷플릭스 등의 큐레이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언택트 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캠핑, 배달, 이커머스, 넷플릭스

힘내라! 컨트롤 타워!
질병관리청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주목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많은 분이 1일 1확진자수를 검색할 만큼 일상에 질병관리청의 발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검색하듯 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면서 출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진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 체계를 관리·감독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어요.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질병관리청에 박수를 보냅니다! 멋져요! 짝짝짝

연관 키워드: 확진자 이동 동선, 방역 당국, 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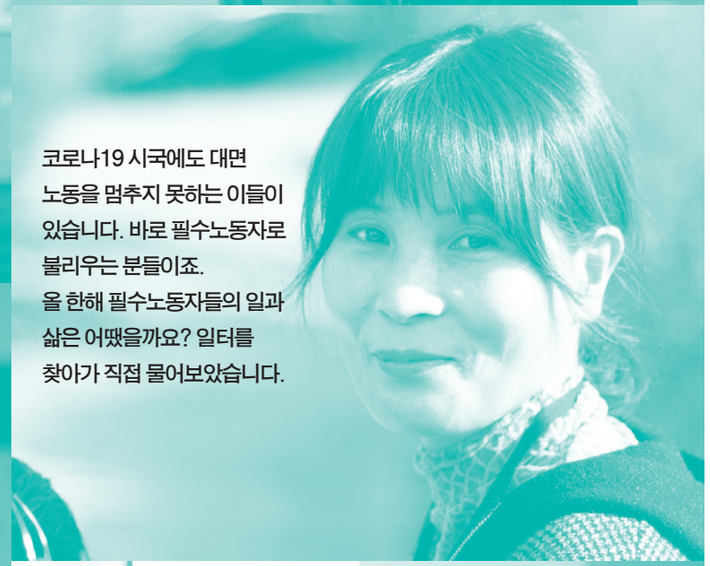
THANKS TO YOU
챌린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직군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안내하면서 고생하는 의료계 근로자를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여러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화훼농가를 돕는 '플라워 챌린지' 등 착한 챌린지들이 SNS를 중심으로 활발했어요. 최근에는 배달량의 급증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나 돌봄 노동자 등을 일컬어 '필수노동자'로 지칭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가 일어나고 있죠. 잠시 잠깐, 오늘 마주하는 필수노동자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관 키워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덕분에 챌린지, 플라워 챌린지

글 권찬미 | 사진 이용기

우리는 모두 필수노동자 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대면 노동을 멈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는 분들이죠.
올 한해 필수노동자들의 일과 삶은 어땠을까요? 일터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진국장

Q_ 코로나19로 과로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요즘 근무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10시간에서 16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어요. 6시 40분 출근해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죠. 코로나19 시국들어서 인당 물량이 30~50%는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_ 택배노동자 과로와 노동환경 문제.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분류작업 문제인 것 같아요. 분류작업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작업 개념으로 공짜노동을 하고 있죠. 이번 대책으로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면서 완화될 것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택배기사들은 힘에 부친 것이 사실입니다.

Q_ 더 사람답게 일하는 환경을 위해서 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요?

최근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서 참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올 한해 많은 분이 참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울수록 서로를 위한 관심과 위로 가득한 연말보내시길 바랍니다.

곽은민
어린이집 교사

Q_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고 휴원에 들어가셨어요. 코로나19 때문인가요?

건물 보수 공사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커요. 제가 근무하는 대구는 특히 초창기 심각했잖아요. 여러 상황이 겹치다 보니 저희 어린이집도 휴원 결정을 했습니다.

Q_ 휴원 이후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곧 물려받을 상황이라 서울을 오가며 교육을 받는 중이지만, 저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무기한 휴직에 돌입하셨어요. 서로 안타깝고 죄송한 상황이 되었죠.

Q_ 아이들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요즘도 길 가다가 종종 아이들과 마주치곤 하는데요. 만나면 여전히 반갑고 아쉬워요. 한편으로는 집에서 돌봄을 하는 어머니들도 계신데,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서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서 다시 아이들과 마스크 없이 환히 웃으며 만나고 싶습니다.

김영철
건물 유지 관리소장

Q_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물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어요. 주차장을 오가는 분들을 안내하는 역할부터 건물의 기술적인 결함이 생기면 찾아가서 돕는 역할 등을 하고 있죠. 또 이런 영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잘 돌아가도록 통솔하고 있어요.

Q_ 사람들을 대면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마스크를 잘 쓰고 철저한 방역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Q_ 힘들다고 느낀 순간은 없으세요?

일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사무실이 많은 빌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뿐이죠.

이정미
청소노동자

Q_ 건물 청소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서너시간 동안 건물의 4층과 5층을 책임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스 정리, 물걸레질 같은 일을 하고요.

Q_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하다보니 답답하고 땀나고 해서 힘든 점은 있죠. 올해로 이 건물에서 일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정규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해요.

Q_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깨끗해진 건물을 볼 때죠. 제가 청소하는 건물은 사무실 빌딩인데, 직원들이 오가면서 여사님, 여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을 해주면 보람이 있어요. 덕분에 힘이 나고 좋아요.

이하정
장애인 활동보조사

Q_ 장애인 활동보조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단순하게는 집 앞 공원 산책부터, 마트 장보기까지. 원하는 활동을 일정 시간 동안 보조하고 있죠.

Q_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이다 보니 코로나 시국에 지속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쉬었죠. 최근에서야 다시 이용자 분을 설득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자 분도 오랜 기간 집에서만 갇혀 지내다 보니 활동 보조를 시작하기 원하셨고요.

Q_ 코로나 시국에 필수노동자로 사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일이 불안정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이용자분께는 사회랑 소통하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를 찾는 이용자분들이 있는 한 언제까지고 근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고용노동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와 실직자부터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책을 정리해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

월평균소득 388만 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소득 5,700만 원 이하)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해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감소하면서 생계의 치명타를 입은 분들이나 혼례 · 장례비 등 생계비가 필요한 분에게 저렴한 연이자 1.5%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죠. 지원 내용은 각각 아래 박스를 참고하세요!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 원	최대 500만원	최대 1,250만원	최대 1,000만 원	최대 1,000만원 (부모 · 자녀 1인당 연 500)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는 12/31까지 한도 인상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천만원 → 최대 2천만원 / (소액생계비) 최대 2백만원 → 최대 5백만원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업 ·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급 휴업 · 휴직 중인 근로자

경영악화로 무급 휴직 · 휴업에 돌입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무급휴직 · 휴업을 실시 중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이내(1일 한도 6만 6천 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총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무급휴직 기간 최소 90일이었다면, 30일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고험 사각지대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생계비 대부가 지원됩니다. 단,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월 300만 원 한도로 1인당 총 2천만 원까지 연이자 1%로 생계비 대부가 지원됩니다. 문의와 신청은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특수고용 노동자 ·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총 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감소에 대한 비교대상기간과 기준기간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에 걸쳐 신청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대상이 되도록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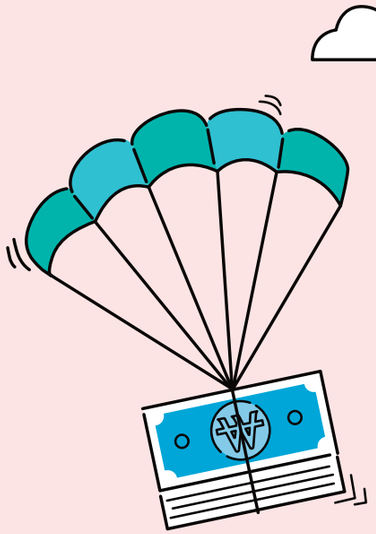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면서 취업 여건이 더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1,2차에 걸쳐 지원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 원이 지급되었죠. 더불어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되었습니다. 아쉽게도 1,2차의 걸친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만, 추후 3차 신청이 열릴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나 메신저 플친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19 특별 지원정책이 있잖아요

코로나19는 많은 사업주에게도 치명타를 입히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 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업 · 휴직 수당의 1/2~2/3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기서 휴업은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 휴직은 1개월 이상 실시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업종의 경우 '20년에 한하여 최대 240일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 ·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1일 한도 6만 6천 원 선으로 지원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무급휴업을 실시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기준으로 총 180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특별업종의 경우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은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31.까지) 특별업종의 경우 유급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일반업종의 경우 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고 해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노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조치하기로 결심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라면?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분의 50% 내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고용유지를 조치한 사업주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혹은 근로개선지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

대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게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휴업수당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콜센터 1644-0083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 welfare.kcomwel.or.kr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경우 (대기업은 60일 이상, 180시간)

* '20.12.31.까지 다음 특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3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로 완화 (대기업은 30일 이상 120시간 으로 완화) ①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 또는 ②고용위기지역 또는 ③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을 위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기업 경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신청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지부 · 지사)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000으로 하면 된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가정과 일터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

가정 돌봄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수 있죠.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휴가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에게 제출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0일), 공공기관 ·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대 10일 한도로 1일 5만원이 지원되는데요. 만일 가족돌봄휴가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을 받을수 있겠죠? 가족돌봄비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한시사업으로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2.20.까지 신청 필요(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와 함께 비용지원신청 가능)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막았나요? 그렇다면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휴업 · 휴직 · 휴가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단축 근로가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급여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남녀 각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급여지원: 최초 5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

고용노동부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적용되는 지원정책에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업장 지침까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를 현명하게 돌파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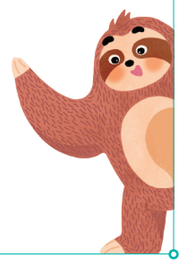
오피스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코로나19 시대의 연대는 서로를 위해 흩어지는 것이죠! 재택근무제나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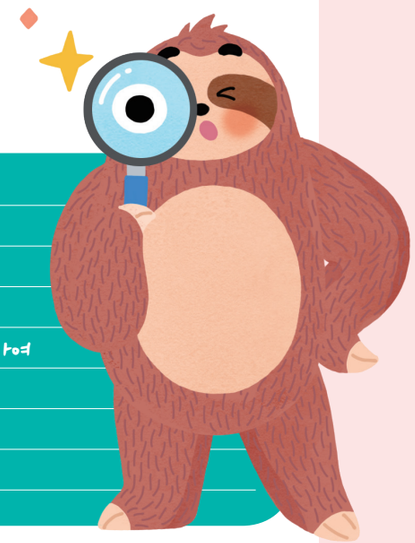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셨나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그런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라면 우편, 방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었어요!



2020년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각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방역관리자 혹은 전담 조직을 지정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대면 업무를 자제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개편된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 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 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 실시 지침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 · 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 · 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 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Hopeful

28
마크라메에 빠진 엔지니어, 공예인으로 거듭나다 이장순 마크라메 공예지도사

32
금속보다 단단한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사나이 동진금속 나상조 대표

36
반려동물과 함께 달콤한 일상을 꿈꾸다! 반달컴퍼니

40
신중년 특화과정 덕분에 전기제어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44
K-BEAUTY의 중심 전세계 미용 트렌드를 이끌어갑니다

48
숙련기술로 활짝 여는 '기술적 미래'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52
택배기사 과로문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56
고용노동 뉴스

마크라메에 빠진 엔지니어, 공예인으로 거듭나다

이장순 마크라메 공예지도사

엔지니어와 공예의 이색적인 만남. 누구도 이장순 씨가 공예인의 길에 들어서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확실했죠. 20여 년을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이장순 씨의 눈에 들어온 마크라메 공예는 한땀 한땀 엮을수록 잃어버린 속도와 감성을 찾아주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일상의 속도를 찾아 준
낯선 공예의 매력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한편에는 작고 아담한 마크라메 공방 '아리랑시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늘어선 액세서리와 인테리어 소품들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아끌죠. 안으로 들어서니 선한 인상의 사장님이 친절한 미소로 반깁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사장님의 눈망울에는 장인의 자부심이 빛납니다. 손수 만든 작품들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단단했습니다.

"마크라메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매듭법으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패턴의 크기도, 색감도, 모양도 결정되죠."

마크라메 공예는 최근에는 취미활동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대표 이장순 씨가 처음 마크라메를 접할 2011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20여 년간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5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이어나갔죠.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었는데요. 등산에 필요한 파라코드를 이용한 생존 팔찌를 만들고 싶어 검색하다가 우연히 마크라메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마크라메를 알게 된 그는 급속도로 이 낯선 공예에 빠져들었습니다. 재료를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마크라메를 만들기 시작했죠. 일과 시간 이후 많은 시간을 마크라메 만들기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캐드를 이용한 설계를 맡아온 그에게 마크라메 작품만들기는 3차원적인 작품 구상이 가능한 흥미로운 일이었죠.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른 속도에 피로함을 느끼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마크라메를 만드는 순간만은 삭막한 세상에서 또렷이 내 감성을 마주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크라메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었죠."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른 속도에 피로함을 느끼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마크라메를 만드는 순간만은 삭막한 세상에서 또렷이 내 감성을 마주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느꼈어요.

동영상 강좌를 들으면서, 또 제가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다양한 분들과의 인연으로 이제는 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에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마크라메 러버
아리랑 시리랑을 창립하다

그의 마크라메 만들기는 결국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8년에 공방을 오픈했죠. 오픈 후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서울로 6개월간 1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다니기도 했어요. 마크라메 공예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였죠."
이후 방송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공방을 오픈하면서 강사로 활약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막상 공방을 오픈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공방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폐업까지 생각하던 시점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났습니다.
"내내 모든 일과를 공방에서 보내다가 오랜만에 외부활동을 할 수 있었죠. 공방 오픈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저에게 노사발전재단의 이명숙 소장님은 항상 '사장님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말도 잘하시고 공예 실력도 있지 않냐'고 말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시시콜콜한 고민까지 다 들어주시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당시 그런 말들이 제게는 정말 큰 위로와 지지가 되었습니다."

폐업의 위기에서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장순 씨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광주 동구청이 함께 마련한 동영상 제작 강좌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폐업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방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도를 구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제 공예 작품들을 모바일에서도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려 하고 있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공방 운영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심적으로 많이 지쳤는데요. 동영상 강좌를 들으면서, 또 제가 방앗간처럼 드나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다양한 분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제는 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에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에 날개를 달아준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장순 씨.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위로와 힐링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집콕할 일이 많은 요즘 마크라메 만들기를 통해서 위로와 힐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가진 재능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end a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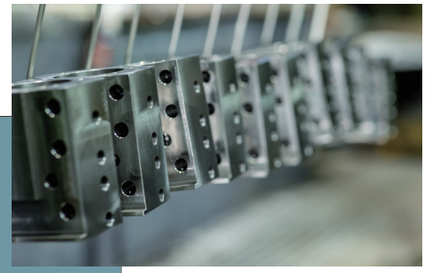
결코 넘어지지 않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딸 이지현

사랑하는 아빠!
늘 지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빠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늘 자신 있게
"아빠요!"라고 답해왔어요.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아빠도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셨었죠. 이제는 다시
또 아빠의 방법대로 극복하고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답니다!
저는 지금 아빠가 마크라메 공방 운영하고
계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아빠가 마크라메
공방을 오픈한 이후로 제가 아빠랑 함께
무언가를 함께 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지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빠가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찾으신 모습이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날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받은 사랑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할게요. 사랑해요

동진금속
나상조 대표

금속보다 단단한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사나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동진금속은 국내에서 알루미늄 표면처리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나상조 대표는 1994년 표면처리기능장을 취득한 전문 기술인으로 오랜 기간 숙련한 표면처리 기술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동진금속에 고스란히 녹였습니다.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는 여전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능한국인이 되기까지 걸어왔던 발자취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어떨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생계를 위해 선택한 공업계 진학

현재 60대에 속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이 부유한 사람들은 대학진학을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공업계열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화학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적성에 잘 맞는 학문이었습니다. 재미가 있다보니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표면처리와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화학공학과 제조업의 표면처리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표면처리는 크게 보면 화학, 금속재료, 전기 이 세가지 학문이 연결성 있게 다루어져야 표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에서 화학과 금속을 함께 배우고 전기 또한 필수로 배웠기 때문에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접목하고 응용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회사에 나가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내 실험실에서는 이론적인 것이나 작은 부분들만 이루어지지만 업체에서는 장비와 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만족스러웠죠. 특별한 계기나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 있듯 저에게도 기술과의 인연이 있었지 않나 회상해봅니다.

한 회사에서 17년간 근무, 도약의 밑거름 되다

나상조 대표는 실습을 나갔던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실습을 나간 회사에 취업을 하고 5년간 근무하게 되면 특례혜택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아연도금이라는 공정을 보게 됐습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음극에 아연금속이 분리되어 붙게 되는데 무척 신기했습니다. 도금의 원리를 알게 됐죠.

"포탄, 대검, 수류탄 등 정말 다양한 피막처리(도금)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 알루미늄은 무게가 가벼워서 포탄이나 수류탄의 피막처리 재료로 활용했어요. 지표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이 알루미늄이에요. 일반적으로 쇠나 철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루미늄이 훨씬 많죠. 미래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윗분께 졸라서 관련부서로 옮겼죠(웃음)."

뿐만 아니라 나상조 대표는 이곳에서 팀장이 되면서 많은 팀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후배양성을 위해서 매일 팀원들을 교육시켰죠. 신입인 직원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전부 가르쳤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일정 궤도이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라인에 가서 조언을 하고 돕기도 했죠. 가장 보람됐던 건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을 전부 반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팀원들이 다 반장이 되니 저 또한 진급을 하게 됐죠. 제 것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후배들을 챙기니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5~10년 정도가 흐른 후 나상조 대표는 서서히 사장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경영진에서 보는 나와 내 스스로가 보는 나 사이에 차이가 생겼죠. 대학교 졸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뒤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 꿈을 다 이룰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를 다닌지 14~15년이 됐을 시점부터는 1~2년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집사람과 의논을 했을 때 더 폭넓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아내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퇴직금 2,300만 원으로 시작한 창업, 더 큰 꿈을 키우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 나상조 대표가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은 겨우 퇴직금 2,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회사로 쓸 만한 장소를 임대할 수도 없고 설비를 갖출 수도 없었죠. 10평 미만의 자그마한 장소를 준비했고 알루미늄 산업이 전도유망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관련 표면처리를 준비했습니다.

설비만 2,300만 원이 들다 보니 유지비나 운영비는 전혀 없었죠. 집사람의 이모님께서 조금 여유가 있어 돈을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내만 일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해도 아니고 7~8년 정도를 계속 함께 근무해줬죠. 일요일도 일을 해야 해서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일요일에 일을 할 때는 회사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진금속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동진금속이 알루미늄 표면처리 쪽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술력, 생산성에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고민했습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것에 확신과 자부심이 있죠.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것도 마찬가지에요. 영광스러운 상이자 타이틀이죠. 내가 받을 능력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 후배들을 위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기능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선정된 것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죠."

나상조 대표는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라 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사업체에 5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잡고 자가공장을 마련하는 꿈을 꾸고 실현했었죠. 이후 만학도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꿈을 키우게 됐고 지금보다 회사를 3~4배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5~6년 뒤 현재의 2공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만족하지만 작년부터 생긴 꿈은 1만 평 규모의 회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고 빠르고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 최소희 | 사진 이용기

반려동물과 함께 달콤한 일상을 꿈꾸다!

반달컴퍼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6.4%로 약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잠시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치를 실감할 수 있죠. 이처럼 반려동물의 존재는 이미 우리 삶과 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번 '더불어 세상'에서는 반달컴퍼니와 함께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점검해봅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길을 걷던 중, 귀여운 강아지가 내 앞에 멈춰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만져도 될까요? 강아지를 입양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맞춰야 하는 예방접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지만, 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은 주로 주변의 '카더라'식의 소문이나, 기업의 마케팅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실정이죠.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물림 사고나, 짖음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로 인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꼭 필요한 이유죠. 반달컴퍼니의 서소윤 대표 역시 반려동물로 인해 하루하루 스트레스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살면서 스피츠 한 마리를 키웠는데, 짖음으로 인한 이웃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했어요.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이웃 할머니들에게 한소리씩 듣곤 했으니까요. 행복하기 위해 데려온 아이인데 결국 서로 더욱 불행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출근길에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직감적으로 강아지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이 돌아왔어요.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걔네들도 외롭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할머니의 한마디는 반달컴퍼니의 공동돌봄 사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던 할머니의 선의를 주변에 알리자,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있다'며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죠. 반려동물 돌봄의 사회적 수요를 알아차린 서소윤 대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돌봄, 그 따뜻한 경험

서소윤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반달컴퍼니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공동돌봄 플랫폼'이다.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매칭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웃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면 그 시간만큼 자신의 계정에 포인트가 적립되어 추후 별도의 비용 없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기 어려운 경우라면 유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반려동물은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어요. 심심하고 불안한 마음에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로 인한 반려인의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려인이 아플 때나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더욱 난감해요.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멀리 사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가까이 사는 이웃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달의 공동돌봄 서비스는 행복한 반려생활은 물론, 이웃과 교류하며 따뜻한 정까지 쌓을 수 있답니다."

공동돌봄 플랫폼으로 반려동물 사업의 수요를 느낀 서 대표는 본격적인 수익사업으로 '반디(BAN:D)'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반디는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고의 유기가 아닌, 유실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위치추적 기기입니다. GPS기능을 탑재해 연동된 어플로 반려동물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내주죠. 하지만 야심작의 개발을 끝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시를 준비하던 도중 대기업에서 비슷한 기능의 기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반달컴퍼니를 운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을 상대로 맞서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죠. 다 끝내자고 마음먹고 주변을 돌아보니, 일이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뼈아픈 실패를 맛본 반달컴퍼니에서 새로운 야심작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위치추적 기능이 중심이었던 이전 버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장착하는 디바이스는 심박수와 활동을 감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후 반달 플랫폼에서 이를 분석해 건강 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반디 피트'라는 이름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발명전시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일 계획이에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함께 하는 직원들이 있어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한몫했고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제품으로 세상을 한결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반려동물 공존사회를 향해

반달컴퍼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펫티켓 교육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마포구 관내 초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펫티켓 교육을 진행했다.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만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식들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돌봄 트럭 시범서비스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은 유행이라 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들리게 되는 휴게소에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보호소에 맡기고 마음 편하게 화장실과 볼일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1회로 그쳤지만, 시민들의 필요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거리에, 휴게소에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저희 반달컴퍼니의 활동은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일들이죠. 이미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저희 사업이 거의 다 프로젝트, 캠페인의 성격이었어요. 수익사업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반달컴퍼니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는 일들, 사회적 기업 제도를 통해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반달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서 대표.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고민하고, 이해하며 한걸음 한걸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움을 받는 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한마디로 깍쟁이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사업을 해나갈수록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필요할 땐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주는 세상, 앞으로 제가 이루고픈 세상이에요."

"반달컴퍼니가 꿈꾸는 내일은?"

엄진용

반려인으로서 동물을 위한 마음을 잘 알기에 진정성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차차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요. 반려동물 공존 도시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양봉현

인간과 동물이 오늘보다 편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가치관과 기술을 한껏 발휘하여 더 나은 내일이 올 수 있게 노력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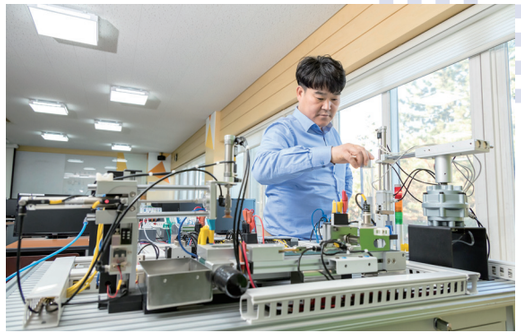
글 권찬미 | 사진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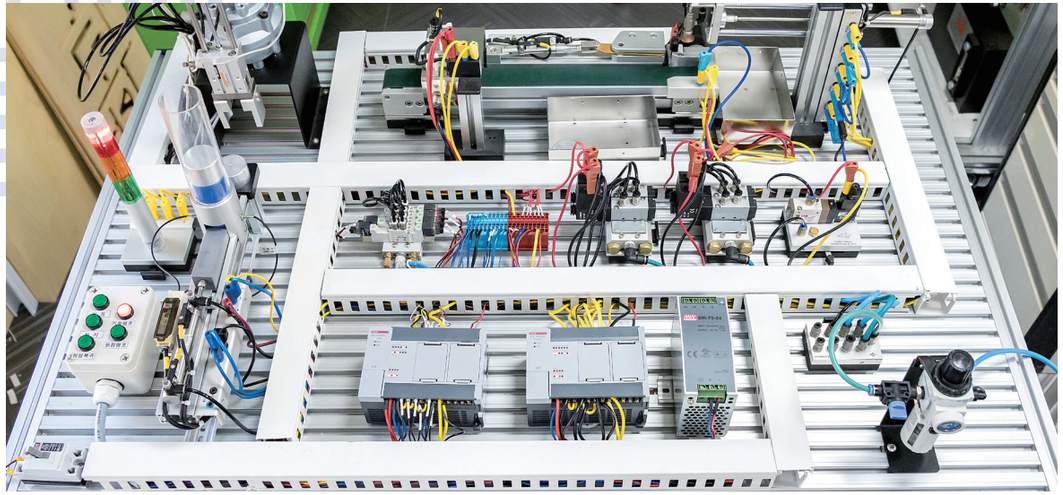
신중년 특화과정 덕분에 전기제어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20년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에는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4050 세대들의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전기제어 과정을 취재해보았습니다.

전북 지역 유일의 전기공사 신중년특화 과정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전기제어 특화과정은 2020년 상반기 첫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인원 25명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은 2배 가까운 57명이 몰렸죠. 신중년 특화과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신설된 이 과정은 전기제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전기제어 분야의 전문가는 다양한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아파트나 건물의 전기를 유지하고 보수 관리하는 업무부터 시작해, 건설건축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는 업무 등.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신설된 과정이기 때문에 실습 장비 또한 가장 최신식의 장비들이죠. 수요가 많아서 수강 중이나 수료 후 바로 취업이 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중년 특화과정 전기공사 과정에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전기제어 전문가 양성,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시퀀스 제어 실무**
계전기의 동작 원리, 모터 구동 결선, 전기공사 실습, 배관 전기 기능사 자격증 내선공사 실무 등을 다룹니다.

② **PLC 제어 실무**
PLC 기본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합니다.

③ **수배전 설비 운영**
전기제어 학과의 가장 중점이 되는 실무 과정으로 건물의 전기를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합니다.

④ **전기 공사 실무**
건축 현장 등에서 전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전기제어과 조성덕 교수에게 물어 봤습니다

Q. 2020년 전기공사 신중년 특화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익산이 위치한 전라북도는 노령화가 빠른 지역입니다. 전문기술 과정에 2030 세대 위주의 과정에 집중했지만, 익산 지역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4050 세대 수요가 많다는 것에 주목했죠. 그래서 4050 세대의 재취업을 도울 수 있는 과정을 고심하다가 전기공사 과정을 법인 신중년 특화과정 공모에 신청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Q.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고,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상반기(1~2월 신청) · 하반기(6~7월 신청)를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각각 과정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4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6시간, 4개월 480 시간의 과정으로 개설되었죠. 교육기간에는 주로 전기 공사실무, 전기안전관리 실무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Q. 중년층이 수강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 모집에 모집인원 대비 200%가 지원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과정에 속합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의 열의도 뛰어난 편입니다. 참여 교육생들이 교육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특히 40대 분들의 경우 교육 후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해당 분야의 전망이 어떻고, 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주로 어떤 분야에 취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전기 공사업, 아파트 건물 전기 유지 보수 업무직, 건설현장의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건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등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죠. 활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전기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잘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Q. 익산캠퍼스 전기제어 과정의 특장점을 말씀해주세요.

익산은 다른 캠퍼스보다 소규모에 해당하지만, 다른 어떤 직업전문학교보다 우수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모두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죠. 전기분야 신중년 대상 교육기관으로는 전북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화된 학과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수 있습니다.

Q. 미래의 수강생에게 한 말씀!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평생 직업을 준비하는 신중년 과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분야 에서 신중년이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의 유일한 특화학과입니다. 끊임없이 인력이 필요한 전기 분야에서 여러분의 인생 2모작을 일구어 보세요!

K-BEAUTY의 중심
전세계 미용 트렌드를 이끌어갑니다

자신을 꾸미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시대. 바야흐로 미용 전성시대입니다. '젊은 여성'이 주된 고객층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남성은 물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미용에 대한 관심은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헤어가 중심이었던 산업 구조 또한 네일아트, 왁싱 등의 새로운 분야의 생성으로 인해 더욱 확장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미용 산업의 미래는 밝은 편이며 관련 인력 수요 또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는 1986년 잠실미용학원으로 시작하여 남다른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미용분야의 모든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과정부터 실무향상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동에 걸쳐 총 9개의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노동부인증평가에서 3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전국에 치킨집 보다 많은 것이 미용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미용실 중에 내게 잘 맞는 미용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아무 곳이나 들어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죠. 좋은 미용사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는 사람이 아닌,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용교육을 통해 세상에 '좋은 미용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를 소개합니다.

전문 미용사의 꿈, 동료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어요

이영훈님_수강생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머리를 잘라주기도 했었죠. 군대에 가서 이발병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용의 재미를 느꼈어요. 머리를 만지면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순간이 좋았죠. 제대하고서도 그 때가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에 남더라고요. 미용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남양주에 살아서 집 근처에 미용학원이 많지 않았어요. 국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는 잠실에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았어요. 큰 규모도 학원 선택에 영향을 미쳤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수업 시간도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게 끝나지 않아,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학원에 남아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갈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반은 15명의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처음 이론수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서먹서먹하게 지냈는데, 실기수업을 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답니다. 저희 반 모두 실기시험에 붙어 전문 미용사로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임수진님_수강생

저는 원래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직종을 변경하려고 미용을 배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타자만 치고 있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방식의 미용분야가 적성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원체 헤어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전혀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요즘이랍니다.
올해 안에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예요. 12월 둘째 주에 실기시험이 있어 마음이 초조하기는 해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웃음). 하지만, 수강생보다 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될 때까지 알려주시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랍니다.
자격증 취득 후, 미용실에서 경력을 쌓고 언젠가는 제 샵을 차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미용실에 네일이나 속눈썹 왁싱 등 다른 업종을 접목한 '샵인샵'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나서 추가적으로 관련 분야의 수업도 들으려고요. 제 꿈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실무 역량 강화 과정

헤어미용 수업은 자격증반과 실무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격증반의 경우 미용공부를 시작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론부터 실기까지 자격시험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피부학, 공중위생법규의 5개 과목에 대한 지식을 객관식 형태의 시험으로 치르게 되죠. 실기시험은 2시간 20분 동안 시험과제로 나온 미용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미용사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커트, 펌, 컬러, 드라이 등을 배울 수 있는 헤어실무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수업에서는 마네킹이 아닌, 실제 사람의 머리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후 현장에서 2~3년 경력을 쌓고 나면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일반고 위탁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을 대상으로 미용기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1년 동안 학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자비 부담이 매우 적고 고등학교 졸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정년없는 직업을 찾나요? 미용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박미선 원장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미용분야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용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정년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이제 막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 국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어느 순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미용분야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라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Point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500만 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

※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훈련과정 수강 신청의 경우 140시간 이상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글 강진우 | 사진 이용기

숙련기술로 활짝 여는 '기술적 미래'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예로부터 인류 문명의 발전, 그 뒤에는 숙련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숙련기술에 대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대다수 학생들이 그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잡월드가 숙련기술체험관을 개관한 이유입니다.

활짝 열린 숙련기술 체험의 장

지난 11월 11일, 다양한 숙련기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로 · 적성체험은 각 직업에 대한 소개와 흥미 유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실제 일터에서 쓰이는 숙련기술에 대해서는 배우고 경험할 방법이 없었는데, 숙련기술체험관이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과거 · 현재 · 미래를 대표하는 숙련기술 10개를 선정해 전통기술 · 기초기술 · 첨단기술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로봇 · 자동화 공정 프로그래밍, 철골 구조물 설치, 냉동공조시설 설계, 항공정비(MRO), 전기자동차 제작, 표면처리 기술, 목공예, 금속공예, 식품 제조 중 하나를 선택해 2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죠."

숙련기술체험관은 학생들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공구를 내실 있게 갖췄습니다. 각 숙련기술단체와 함께 숙련기술의 중요성과 흥미를 두루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이 체험하는 만큼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죠. 나아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숙련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다양화한 것도 숙련기술체험관 프로그램의 특장점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빠르게 친해지다

숙련기술은 말 그대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완성된 기술입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순 없는 일! 따라서 숙련기술체험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숙련기술을 접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도구와 기가재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용하는 '핸즈온(Hands-on)'의 비중을 높였어요. 예컨대 '로봇플레이' 체험실의 경우 실제 로봇 팔과 그 움직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PLC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교육과 학생들의 흥미를 모두 잡았죠. 이와 함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도 체험 프로그램에 듬뿍 녹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체험 몰입도를 높였어요. 냉동공조시설 설계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크릿 퍼즐'에는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탈출 게임 환경을 적용했습니다. 표면처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금술학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신비로운 마법학교를 모티브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이 숙련기술이라는 단어에 주눅 들지 않고 각 기술을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어요.
그래서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체험에 집중했고 숙련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요. 특히 숙련기술의 비전을 눈여겨봐 온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두루 호평받고 있어요. 흥미롭고도 유익한 숙련기술로 학생들의 미래 가능성을 한층 넓힌 셈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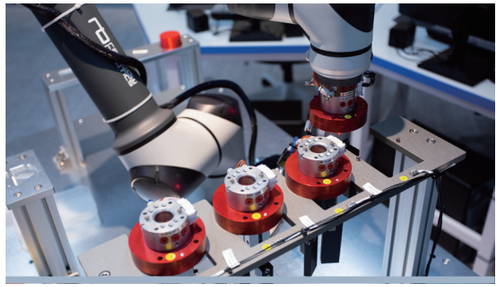
숙련기술 발전의 요람으로 나아가다

숙련기술체험관은 10개의 체험실과 함께 홍보·역사실, 기획전시실, 취업·창업교육실도 마련했습니다. 홍보·역사실과 기획전시실에는 숙련기술의 역사와 기술 명장들이 직접 만든 제품 및 그들이 걸어온 시간을 보기 좋게 전시했습니다. 또 기획전시실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온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과와 참가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 체험관 방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롤모델을 제시했죠. 체험관 구성에 많은 도움을 준 숙련기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술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업·창업교육실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숙련기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요. 차후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체험관에 와서 숙련기술에 대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숙련기술에 대해 궁금할 땐 언제든 마음 편히 방문해 주세요!"
숙련기술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숙련기술체험관이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이자 밑바탕인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전문가 배출에 힘을 보태는 '숙련기술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Mini Interview

대외협력본부 고객홍보팀 김미화 팀장

"알고 보면 직업과 숙련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할수록 숙련기술이 쌓이고, 이러한 숙련기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이 이뤄지니까요. 그러니 한국잡월드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함께 여러 가지 숙련기술도 함께 체험해 보세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숙련기술체험관 Information>

한국잡월드 숙련기술체험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운영시간: 홍보·역사실 09:00~18:00 /
체험실-1부 10:00~12:00, 2부 13:00~15:00
(정기휴관: 매주 일·월요일/1월 1일/설날·추석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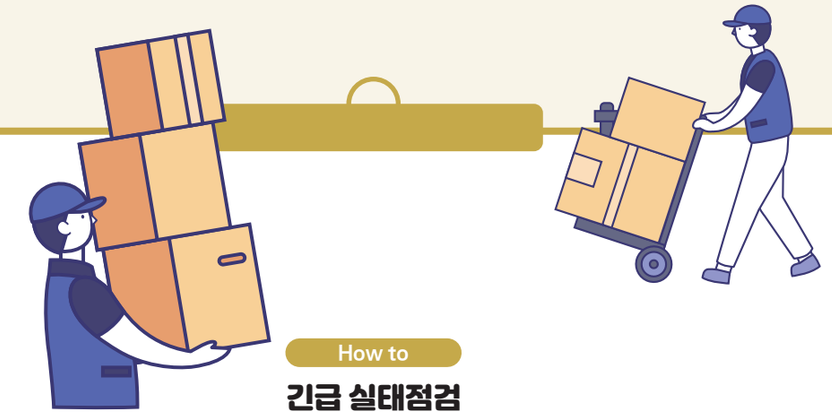
요금안내: 홍보·역사실 무료(사전예약 없이 자유관람) /
체험실 5,000원(홈페이지 사전 예약)

예약방법: 한국잡월드 홈페이지(www.koreajobworld.or.kr)

안내전화: 1644-1333

택배기사 과로문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일컫는 말이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대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과로문제를 겪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How to

긴급 실태점검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택배기사들의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현황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1억 6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된 실태를 파악하고 1:1 면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45개소 및 대리점 423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습니다.

*① 업무시간 · 휴게시간 · 배송물량 등 작업조건, ② 건강검진 실시 여부 및 건강상 문제 등 건강관리, ③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관계의 공정성 등

** 물량 점유율(`19년, %) : ① CJ대한통운(47.3), ② 롯데(13.9), ③ 한진(13.2), ④ 로젠(7.8)

How to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적정 작업시간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 ·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며,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분류작업 개선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 · 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택배사 책임 강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How to

건강보호 강화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험군 관리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도하겠습니다.

How to

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 부상, 임신 ·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20.9.11.)

How to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해당 논의기구에는 사업자 · 종사자 · 소비자,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구성 · 운영 방안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to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사업자-대리점, 대리점-종사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가 택배 현장 곳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별제보기간 운영 아울러,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추후 제도개선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반영

How to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

택배가격 구조 개선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내년부터 '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저리융자, 펀드 등을 활용하여 연 5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회 및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물류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활물류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2%p 이차보전을 통한 저리융자 5천억원 제공, 물류펀드 조성 · 지원 등

News

①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속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주요 기업 관계자 및 배달종사자들과 함께 지난 11월 3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륜차 관련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의 안전활동 추진사항과 배달종사자의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배달종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 앱(App)과 연계하여,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 안내, 기상(폭우 · 폭설 등) 및 조건별(사고 다발요일 등) 맞춤형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정보공유프로그램*(Open-API) 개발 · 보급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배달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부처(국토교통부 · 경찰청)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추가 마련 ·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축적된 데이터 혹은 개발된 전산 서비스의 외부 이용이나 응용 개발을 위해 외부에 개방된 정보 공유용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 · 샤워시설 등을 긴급지원(소요비용의 70%)

②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 · 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 ·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 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 · 중독사고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계도기간(11.9.~11.20.)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제작 ·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건설현장에서 겨울철 안전교육 시 활용하도록 하고,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 · 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이후(11.9.~11.20.)에는 3주간 화재 · 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작업 등 추락위험 현장,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 · 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 · 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③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하여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자하여 결성됐습니다. 이번 투자조합은 임팩트비즈니스*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총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 · 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됩니다. 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하여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④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이 11월 11일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은 2012년 개최 이후 올해 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내외 인사들이 각국의 사회적경제 현황 및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국제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조명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알렌 코어(Alain Coheur) 사회연대경제 국제포럼 공동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강한 회복력(Resilence)을 갖고 사회 ·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조망했습니다.

한국판뉴딜

5 청년일자리사업 우수 참여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인 ㈜매스프레소를 방문하여 대표 및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기업과 청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시작 전 매스프레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수학문제 풀이 어플리케이션 '콴다(QANDA)'를 흥미롭게 체험했으며 이후 대표이사 및 청년 재직자 간담회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현장 반응, 사업 참여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은 장래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을 단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적시에 일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소중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기업 현장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및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정보기술(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에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 10%를 최대 6개월간 지원

Healing

62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꿈꾸던 커리어우먼,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한가요?

66
판교 사투리로도 불리는 스타트업 용어를 아시나요?

68
직장인 모티켓 (Mobile+Etiquette) 잘 좀 지킵시다!

70
코로나19로 유난히 추운 겨울 제 고민 좀 들어봐 주실래요?

74
정주행에 빠진 당신,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합니다!

76
마스크로 생긴 트러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78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아쉬움을 달래줄 선물 같은 작품들

82
애독자 모의고사

그때 그 시절 우리가 꿈꾸던 커리어우먼,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한가요?

1995년 직장의 풍경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입는 옷에서도 하는 역할에서도 진급에서도 차별이 만연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일구어낸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비교적 유연하고 평등한 직장 풍경을 맞이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일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잠시 1990년대 사무실 풍경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마이 드림 이즈 커리어우먼"

이곳은 1995년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기업 직장. 칙칙한 양복 군단 사이에서 유독 튀는 유니폼을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업무능력은 퍼펙트 하지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8년째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커피를 타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주인공 생산관리3부 자영(고아성), 마케팅부 유나(이솜), 회계부 보람(박혜수)도 커리어우먼을 꿈꾸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를 버티어 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사내 올라온 공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토익 600점만 넘기면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공고는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대리 승진의 꿈은, 출근 전과 퇴근 후 옹기종기 모여 영어 회화 수업에 열을 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영어공부의 끝에서 과연 그들은 8년째 말단 직원의 딱지를 떼고, 꿈에 그리던 커리어우먼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학력이나 성별로 인한 차별은 NO! 차별금지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대한민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차별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항목을 명시한 항목 제7조 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정의조항 제3호에 의하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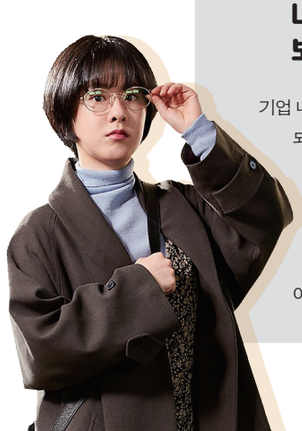
"내부고발이라도 하게? 나서지 마. 우리만 다쳐"

성실하고 일 머리 좋은 자영. 어느 날 공장에 방문했다가 검은 폐수가 다량 유출되는 것을 보고 맙니다. 정수되지도 않은 채 콸콸 쏟아지는 폐수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자영은 회사의 비밀을 결국 밝혀낼 것을 결심하죠. 현실적인 유나는 그런 자영을 걱정스레 말리지만, 결국 정의감에 불타 회사 비리를 밝히는 일에 합류하고,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의 보람은 객관적인 분석으로 오폐수 검사 결과의 은폐 정황을 잡아냅니다. 실제 오염 결과지인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한 이들은 언론에 밝히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죠. 하지만 역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인 걸까요. 그런 그들의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의 주인공들은 되려 내부고발자로 찍혀 징계와 부당해고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부고발로 인한 징계와 부당해고,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기업 내 내부고발로 인한 징계와 부당해고 문제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직위해제로 임금이 20% 감액되거나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요. 그 징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직위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가 특정되고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가 결여되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죠. 내부고발은 근로자라는 자신의 불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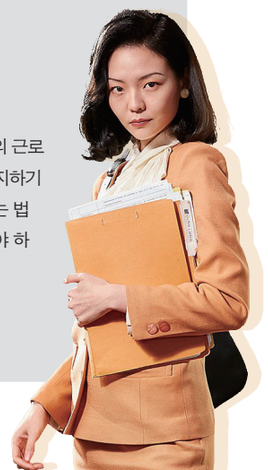
"아이 캔 두 잇, 유 캔 두 잇, 위 캔 두 잇!"

부당한 징계의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주인공들. "아이 캔 두 잇, 위 캔 두 잇"을 외치며, 회사 비리의 핵심 인물을 결국 포착해냅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릅니다. 오폐수 문제를 방관이 비밀리에 진행되던 회사 인수합병 계획의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해외 기업으로 강제 합병될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전원이 한 마음으로 뭉칩니다. 국내 최대기업이 저렴한 값에 해외로 넘어가게 된 위기의 날, 회의실에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직원들이 등장합니다. 그 동안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 그들은 회사 인수 반대 의견을 취합할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아냈죠. 결국 주주들의 반대로 회사를 지켜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커리어도 회사도 지켜냈네요. 꿈꾸던 커리어우먼으로 든든히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인수합병이 된다면, 합병되는 기업의 직원들은 자동 해고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판교 사투리로도 불리는 스타트업 용어를 아시나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 일대에서 최근 신생 창업기업인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유의 유연한 근무 환경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독특한 조직문화만큼이나 흥미로운 스타트업 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반응에 따라 보완해나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해 짧은 기간 동안 시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바로 개선하며 성공 확률을 높이죠. 린 스타트업 전략을 쓰는 그룹의 경우 비교적 적은 인원이 프로젝트 형태로 움직입니다.

데모데이

스타트업 사업모델이나 제품,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참여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구성원들의 발표를 듣고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죠. 이때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사업모델과 시장전망을 담아서 설명하는 자료를 피치덱(Pitch Deck)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엔젤 투자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좋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한 신생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라서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창업자금이 가로막힌 창업자에게는 가히 천사처럼 느껴질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시리즈 A,B,C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시점을 구분하는 말로 투자회차에 따라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등 명칭도 달라집니다. 시리즈A는 시제품 개발부터 시장 공략 전 단계에 받는 투자를 지칭하는 말로 보통 18개월 전후의 기간에 해당하며 약 10억 원 수준의 투자를 받는 단계를 말합니다. 시리즈B는 대대적 인력확보로 일정 규모를 갖춘 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기간이며 40~1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받곤 하죠, 시리즈C는 검증된 제품을 통해 큰 수익 창출에 나서기 전 투자단계를 말하며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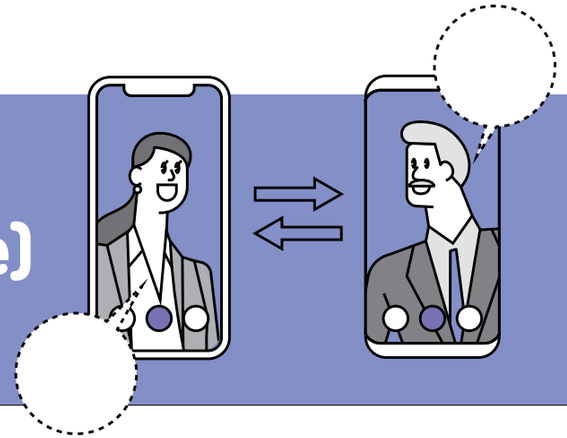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는 모두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순서에 따라 조금 명칭이 다릅니다. 인큐베이터는 창업 극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컨설팅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입니다. 시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에게는 회사 설립 및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역할까지 하죠. 액셀러레이터는 나아가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와 관리를 도와주는 창업기획자 및 단체입니다. 업무공간 및 마케팅, 홍보 방안을 돕고 멘토들을 연결해주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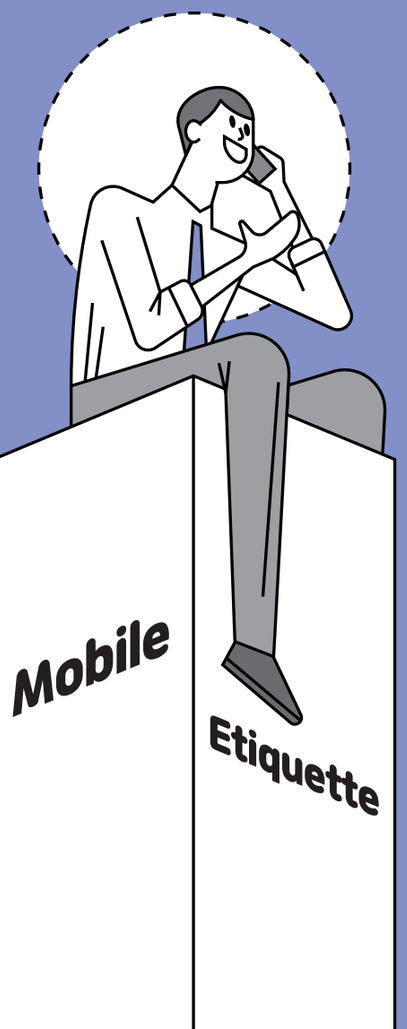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니콘은 뿔이 한 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이죠. 그만큼 드문 가치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을 드러내는 말로 쓰이는데요.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약 400여 개에 불과하고, 국내에는 약 10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기업가치가 약 11조 원(100억 달러) 이상이면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 기업으로 불리고, 유니콘의 100배 가치를 가진 1천억 달러(약 110조 원) 기업은 헥토콘 기업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서도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직장인 모티켓 (mobile+etiquette) 잘 좀 지킵시다!



직장인에게 모바일폰 에티켓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바일폰의 경우 개인적인 전화와 사무용 전화가 혼재되어 울리기 마련인데요. 사무실 내외에서 모티켓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할지 알아봅니다!



사무실에서도 밖에서도 적절한 데시벨로!

유난히 목청이 좋은 경우라면 쉽지 않겠지만, 조용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 전화라도 내가 전화할 때 모든 이들이 내 통화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곤란하겠죠? 이는 사무실 외에서도 적용되는데요. 화장실이나 복도에서도 듣는 귀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무실 안팎 어디서나 적절한 데시벨로 통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리를 비울 때에도 꼭 소지합시다!

미팅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을 자리 위에 올려두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잠깐의 휴식이 남들에게는 울리는 핸드폰을 받을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이 고민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업무 전화인지, 사적인 전화인지 동료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무실 내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상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녀서 서로 간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어폰은 사용은 눈치껏!

최근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서 무선 이어폰을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줄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해주는데요. 한편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어 통화 시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주변의 중요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없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어려운 경우 한 쪽만 끼는 등. 사무실의 상황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통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유난한 벨 소리! NO! NO!

벨 소리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때에 급작스럽게 울리는 큰 벨 소리는 동료들의 업무의 집중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는 되도록 진동 모드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진동 모드를 했을 때 착신이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 벨 소리 음량을 최대한 낮추어 동료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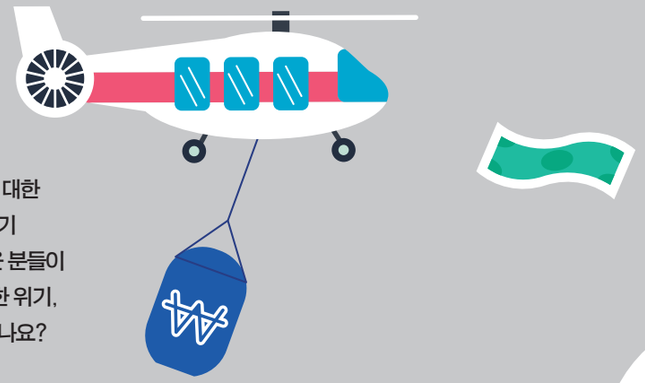
개인 전화는 되도록 사무실 밖에서 받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는 요즘 같은 때. 모든 개인 전화를 사무실 내에서 받는다면 서로 괴롭기 마련이겠죠? 친인척들의 경조사나 친구들과의 격 없는 대화, 대출 상담 전화에 이르기 까지. 개인적인 내용의 전화가 길어질수록 사무실 내에서 듣는 귀는 많아집니다. 이는 전화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랜 시간의 외근이나 재택근무 시에는 착신 전환을!

장시간 외근이 잡혔거나 자리를 비울 예정이지만, 업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착신 전환 기능을 통해 외부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착신 전환을 한 경우, 주요 고객사와 협력업체 등의 번호를 미리 저장하여서 외부에서도 바로바로 알아보고 적절한 비즈니스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센스도 갖추고 있다면 좋겠죠?

글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따뜻한 기운이 넘치기 마련이지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유난히 추운 겨울 제 고민 좀 들어봐 주실래요?

Q1 **호텔업에 근무하다가 매출이 급감하면서 1달째 유급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유급휴가 급여분을 확인해보니 기존 월급의 50%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100%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50% 미만으로 떨어지니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번 달 생활이 걱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로 적금을 깨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기한없는 유급휴가에 수입도 급감하니 언제까지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이 이렇게 임금의 절반 이하로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제가 받은 금액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_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일반적으로 월 급여 총액)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가 급격한 매출 감소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휴업을 진행할 정도인 때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리 무급휴가나 무급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호텔업에서의 매출 감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담자가 유급휴가를 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담글에 명시된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이거나 사용자의 결정에 의한 100%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100%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수당액은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담당 부서에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호텔의 매출 감소 이유)를 확인하고,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 급감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정 휴업수당보다 낮은 금액의 지급에 동의를 한 적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인 결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경우,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당초 휴업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7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자가 휴업수당 차액이 발생하여 그 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2

사무직으로 3년가량 일하다가 아이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우니 복귀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영영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사에 복귀할 방법이 없을까요? 믿던 회사에 발등 찍힌 기분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A_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상 복직시키지 않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분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최근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담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고 싶어도 경영난 등의 이유로 부서가 폐지되거나 사업이 축소되어 복귀가 여의치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상담자는 (법률적으로는)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 시 원직 복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이 나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정상적인 복직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자칫 감정이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긴급 자녀돌봄 등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한시 운영 원칙)이 있음을 안내하고 동 제도 적용을 요청하거나, 주 35~40시간 이내의 소정 근로를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시 지원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동 제도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가지 지원금과 관계없이 감소한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단축근로제도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회사의 사업환경이 매우 힘든 경우에는 먼저 복직한 후에 무급 휴가나 휴직제도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지원금 제도나 노사간 고통 분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회사의 복직 금지가 고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을 회사에 촉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코로나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에 수입이 없어져서 당황스러운데요. 저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_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상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도산하여 폐업 등에 처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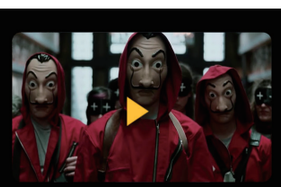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판단은 먼저 회사가 작성하여 신고하는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개인사유 퇴사 의미)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직 사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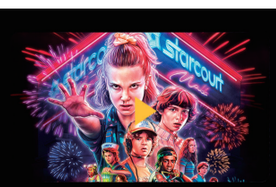
통상 구직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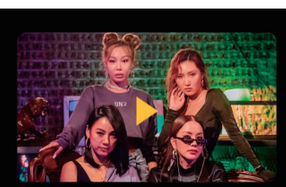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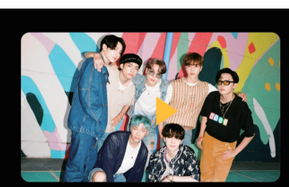
구직급여 외에 사안에 따라 상병급여(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계속고용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등 제도별로 자격요건 충족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 가능한 지원금이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안에 따라 구직활동 단계에서 동 장려금 제도를 구인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 좀 더 용이한 취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주행에 빠진 당신,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많은 양의 영상을 한 번에 몰아보는 정주행 문화가 인기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함께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모든 플랫폼이 같지 않습니다. 내가 자주 보는 동영상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천해드릴게요!

해외 영상 덕후라면?

넷플릭스

뉴욕의 화려한 상류층 문화를 담은 미드를 보고 자랐고, 차진 영국 발음을 만나볼 수 있는 영드 시리즈를 탐독하며 살아온 당신! 더 다양한 해외 드라마를 만나보고 싶다면? 단연 넷플릭스를 추천합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OTT 서비스로 손꼽히는 넷플릭스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영상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른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을 단독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 요소입니다.

요즘 핫한 예능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티빙

요즘 유행하는 인기 예능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트렌드 리더'라면? TVN, JTBC, OCN 등 다양한 케이블 채널 위주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인 티빙을 추천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예능, 드라마 영상 등을 많이 볼 수 있죠. 실시간으로 인기있는 방송 순위도 볼 수 있어서 요즘 뜨는 인물이나 콘텐츠, 이슈에 대한 감도 익힐 수 있답니다.

키워드별 맞춤 영상을 추천받고 싶나요?

왓챠플레이

'귀여운, 발랄한, 안타까운, 따뜻한, 희망적인, 몽환적인, 사랑스러운, 슬픈, 괴짜, 가공의 세계, 퍼포먼스.' 왓챠의 콘텐츠 추천 카테고리는 독특합니다. 단순히 영화 / 드라마 / 예능과 같은 유형의 분류가 아닌 콘텐츠가 가진 분위기나 키워드를 선택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분류했죠. 또 왓챠플레이 또한 왕좌의 게임, 체르노빌 등 명작 미드 제작사인 HBO의 제작 작품을 제공하는 등 대중성 있는 해외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금 방영한 그 드라마, 바로 본다

콘텐츠 웨이브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신가요? 그렇다면 실시간 퀵 VOD 서비스가 있는 콘텐츠 웨이브를 추천합니다. 지금 방영하고 있는 방송부터, 방금 끝난 따끈따끈한 최신방송까지 빠르게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몇 시간 후에 VOD가 업데이트 되는 타 서비스에 비해 확연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세는 숏폼 영상

유튜브 레드

MZ세대의 대세 키워드가 있다면, 숏폼 콘텐츠 영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가장 핫한 SNS로 손꼽히는데요.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보기보다는 짧은 동영상들을 광고 없이 보고싶은 분들에게는 유튜브 레드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궁무진하게 만나볼 수 있을거예요.

마스크로 생긴 트러블,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어느새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요즈음. 매번 챙기기 귀찮은 것은 둘째 치고,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죠. 마스크로 생긴 트러블, 잘 케어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외출 후 꼼꼼한 세안은 기본!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역시 꼼꼼한 세안입니다. 마스크 착용 후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된 피부에는 더 많은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요. 이를 고려해 자극이 많이 가지 않는 저자극 클렌징 제품으로 꼼꼼한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다습한 피부를 잠시 쉴 수 있게!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꾸덕꾸덕하고 영양이 가득한 크림 질감의 제품보다는 수분감이 많고 가벼운 제형을 가진 제품으로 피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아요. 또 마스크를 보관할 때도 습한 환경보다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은 지양합니다!

마스크를 여러 번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균은 더욱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혹 어쩔 수 없이 재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놓고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물!

마스크 때문에 이미 트러블이 생기셨나요? 하지만 상처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과정에서 손에도 세균이 묻기 때문이죠. 세균이 묻은 손으로 트러블 부위를 만지면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아쉬움을 달래줄 선물 같은 작품들

크리스마스 갤러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 토마스 킨케이드

어린 시절 자주 주고받던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에 유독 자주 사용되곤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토마스 킨케이드의 작품들인데요. 눈 내린 겨울 풍경을 주로 그리지만, 그의 그림에는 따뜻함이 넘실대곤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릴 적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화가 토마스 킨케이드는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이 무엇이든 나는 사람들이 느낄만한 어두운 면에 빛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화가의 마음이 담긴 듯 빛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죠?

"수고했어 올해도" 고생한 서로를 다독이고픈 2020년의 마지막 달.
고생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작품들을 소개할게요.

힐링 페이퍼

한 해의 끝자락, 아쉬움이 남는 그대에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연말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해지기 마련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의 반도 실행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그런 분들에게는 모지스 할머니의 책을 권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로 손꼽히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는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죠. 그런 작가의 자전 에세이와 그림을 따라 읽어나가다 보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변치 않는 고전의 매력
〈크리스마스 캐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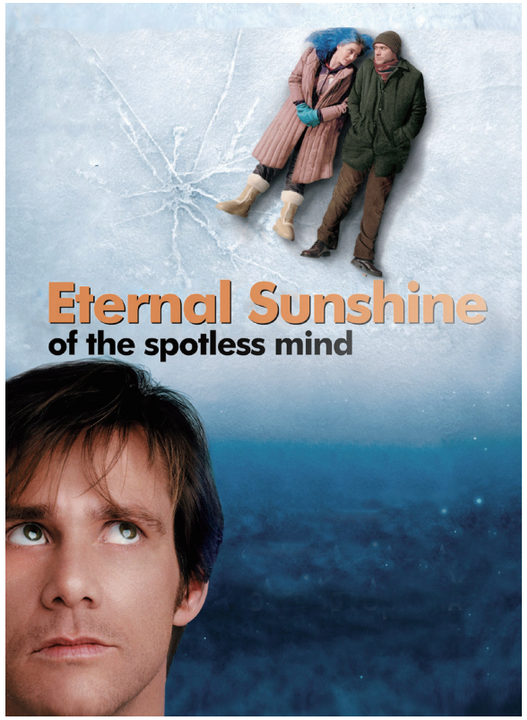
성탄절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들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작품, 찰스 디킨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이 작품은 수 세기에 걸쳐 여러 언어로 번역되며 사랑받아 왔는데요. 인색한 노인의 쓸쓸함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대조되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스페셜
스테이지

눈이 휘둥그레 화려한 무대 속 세상 〈캣츠〉

추운 날씨 탓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겨울에는 뮤지컬로 기분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가 사랑한 명작 뮤지컬 〈캣츠〉의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30개국 3백개 도시 8천만 명의 선택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 캣츠의 황홀한 무대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눈과 귀가 호강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누려보세요!

리멤버
무비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이터널 선샤인〉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다 보면 꼭 잊지 못할 흑역사 하나쯤 생각나곤 합니다!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트러블과 사소한 말실수, 잘못된 선택 등. 누구나 잊고 싶은 기억은 있죠. 여기 실패한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픈 주인공이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했지만, 변해가는 세월 속에 무력해진 사랑의 기억은 과연 무사히 지워질 수 있을지. 영화 속 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Remember Me 〈코코〉

호기심 많고, 꿈도 많은 어린 소년 코코. 음악을 사랑하는 그에게 가해지는 음악 금지란 가풍은 너무합니다. 마을 축제의 날. 결국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기타를 집어 든 소년에게 펼쳐진 환상적인 세상. 그 화려하고 이상한 세계에서 소년을 무엇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 시청해도 좋을 영화, 화려한 볼거리와 따뜻한 메시지가 가득한 가족 애니메이션 〈코코〉를 추천합니다!

2020년 12월호

애독자 모의고사

성명		전화번호	

모든 해답은 〈월간 내일〉 12월호에 있습니다.

1.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14세기 발병해 중세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부터 2009년 신종플루,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해당했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❶ 페스트
❷ 에피데믹
❸ 엔데믹
❹ 팬데믹

힌트
8페이지를 살펴보세요.

2.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오피스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유연근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아래 보기 중 유연근무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❶ 시차출퇴근제
❷ 전일제
❸ 선택적 근로시간제
❹ 재택근무제

힌트
25페이지를 살펴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의고사 답안, 이렇게 보내주세요!

엽서로 제출 시 엽서에 답안을 기입한 후,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웹진으로 제출 시 기본 '카메라' 앱을 연 후, QR코드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 후, 정답을 입력합니다.

*QR코드가 스캔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설정 > 카메라 > QR코드 스캔 'ON'으로 변경 > 위 방법대로 다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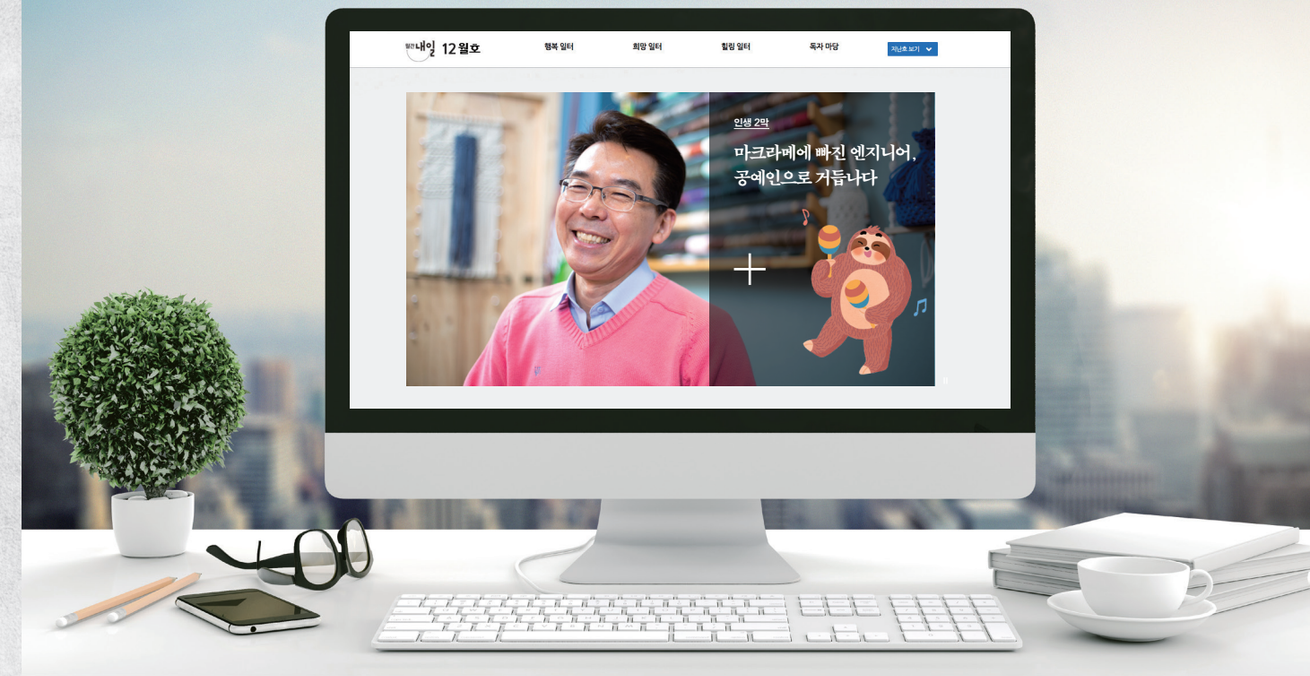
11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이화연	김수안	김세라	손영미
정성엽	김성수	황경미	
이연희	서순영	김명화	

* 퀴즈 당첨자 분들껜 11월 중으로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립니다.

〈월간 내일〉을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www.labor21.com

1. 인쇄 잡지로 만나기
엽서를 보내시거나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2.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com'을 입력하세요.

3.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시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고용노동부